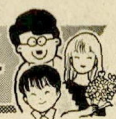


# 저학년일수록 “집안 썰렁” 불평

자녀와 함께 생각한다



(15)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면서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들에게도 하나의 커다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점심시간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여학생들은 어머니 취업 유무에 상관없이 대체로 어머니 취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엄마가 7개월 전부터 가게 일을 시작하시니까 신경질도 적어지고…… 힘들어하시지만 첫째로 즐거워 하시니까 나도 좋아요.” “우리 엄마는 패션디자이너예요. 엄마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저에 대한 간섭이 적어지니 좋죠, 뭐.”

직장을 안 가지고 늘 집에 있는 어머니를 불편해 할 정도로, 고등학교 2학년생인 이들은 ‘어머니의 취업’에 대찬성이었지만 학년이 내려가면 받아들이는 양상이 다르다.

“처음에 엄마가 직장에 나가신다고 할 때는 대찬성이었죠. 그런데 막상 나가시고 나니까 학교 다녀와서 동생하고만 놀아야 되고 전화 메모도 잘 해두어야 하고 우유값, 신문값, 관리사무소의 연락사항도 체크해야 되고…… 책임이 무거워요. 밖에 나가 놀 수

## 어머니 취업

## “아이들 문제아 되기 쉽다” 주부들도 안절부절

도 없어요.”

2년전부터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는 중학교 1학년생 김호철(13)군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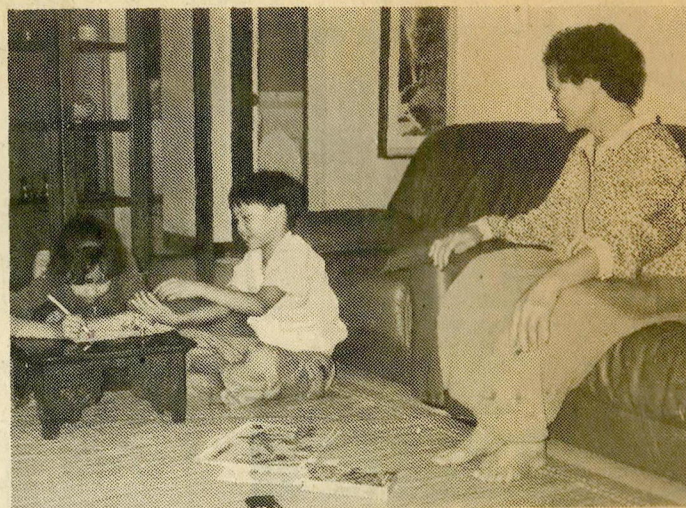
어린 학생들이 어머니의 취업이 싫은 이유로 꼽는 대표적인 것이 ‘학교를 마치고 오면 이야기할 상대가 없어 쓸쓸하다’는

것임을 보면 해가죽 속에서 어머니의 취업으로 받는 어린 학생들의 고충이 잘 드러난다.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숙제가 많은 국민학생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국민학교 4학년인 안윤지(11)양은 “엄마가 직장에 나가시니까 학교에 잘 안오시고 맛있는 것도 잘 안해주신다. 나는 커서 일은 조금하고 돈은 많이 버는 직장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만큼 어린 자녀들을 둔 취업 주부들의 갈등도 심하다. 아이들 때문에 주부로 있다 2년 전부터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임옥민(40)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 활기도 생기고 재미있긴 하지만 주변

에서 어머니들의 교육열이 지나치게 높고, 학교에서도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아이는 어딘지 허술한 구석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이렇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취업 주부들이 아이들이 아프



‘어머니의 취업’이 이제 자녀들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등장했다.

거나 학부모소집일, 운동회 등 학교행사가 있을 때면 쉽게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 근무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주부 자녀가 문제아 되기 쉽다는 사회통념에 집할 때면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어머니의 취업과 학교교육 및 자녀의 성취에 관한

연구’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성적, 학습태도, 인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밝혀내 그동안의 사회통념을 바꾸어 주었다.

당시 연구를 맡았던 한국교육개발원 최상근 연구원은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사회 전체적으로 직장근무 시간을 줄이고, 아버지도 양육에 적극 참여하며 취업모의 자녀를 고려해 학교에서 오후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 사회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학생 이상만 돼도 학생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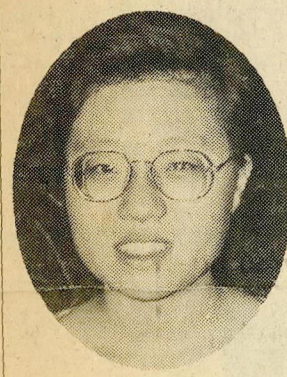
# 힘들어하는 엄마 우리가 이해를

늘 우리와 함께 계셨던 엄마가 처음 직장에 나가신다고 하셨을 때 난 ‘엄마가 좋아하시면 나도 좋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막상 다치고 나니까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겼다. 집 자기 집에서 엄마한테 연락할 일이 생겨서 사무실로 전화해도 안되고 늦게 들어오시는 날

이 많을 때는 ‘엄마가 그냥 집에 계셨으면 더 좋았을 걸’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일하는 아줌마가 오시다 못 오시고 외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니까 외할머니도 힘든 것 같다. 특히 엄마는 일이 있어서 늦게 오시지만 아빠나 외



임수정  
(서울 구정중 3년)

할머니께서 엄마가 늦는다고 화내실 때는 참 불편해진다.

나는 괜찮지만 국민학교 4학년인 막내동생은 엄마가 안계시면 숙제를 잘 안하고 해서 걱정이 좀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지 우리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직장을 다니고 싶기 때문에 그때 우리 아이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엄마를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그래도 엄마는 너무 힘든 것 같다.

엄마가 밖에 나가시니까 간섭이 적어서 좋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엄마가 자주 미안해 하셔서 이상하다” “집에만 있는 엄마가 답답해 보인다”고 쉽게 이야

기한다. 그러나 ‘밤늦게 잠깐 자녀들을 볼 수밖에 없는’ 긴 직장근무 시간이 취업주부들을 여전히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김미경 기자>